잇따른 재해에도 발 빠른 대응으로 종단 안정 도모

2025 종단 결산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올 한 해 조계종은 각종 화재와 수해로 종단 안팎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다. 잇단 재난 속에서도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 복구에 나서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와 함께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주요 종책들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조직 개편'을 비롯해 '선명상 대중화', '경주 남산 마애불 바로모시기'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났다. 201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면·경감·복권'을 시행해 종단 운영의 안정과 내부 화합도 도모했다.

화재 · 수해로 사찰 피해 확산

올해는 대형 재난이 잇따르며 사찰 피해가 컸다.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의성 고운사와 운람사, 만장사, 청송 수정사·보광사, 안동 용담사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주요 불교문화유산은 긴급 이송 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불교계는 즉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사부대중의 정성 어린 원력 속에 피해 사찰들은 현재 복구에 속도를 내며 화마의 상처를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고 있다.

여름철에는 산청과 충청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또 한 차례 시련을 맞았다. 산청 율곡사와 서산 천장사, 수덕사 등 여러 사찰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되며 피해가 발생했다. 조계종은 즉시 긴급구호단을 구성해 수해 복구에 나섰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며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총무원 청사 화재…6개월 만에 복구

올해 6월 10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청사인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종단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조계종은 화재 직후 조계사 담소를 비롯한 인근 9곳에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종무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TFT를 구성해 복구 작업에 즉각 착수했으며, 사부대중 역시 자발적인 기금 전달로 복구에 힘을 보탰다.

12월 15일 업무동 재입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명상' 대중화, 외연 확대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 사업은 '선명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추진 체계가 정비되며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을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발원했다. 사진은 산청 율곡사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됐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운영 방식도 점차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선명상은 특정 사찰이나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마음 평안'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특히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국제선명상대회 본행사 및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선명상과 교육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선명상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도 모색했다.

마애불, 실대형 모의실험서 30㎝ 양중

불교중흥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도 구체적인 진척을 보였다.

고송문화재보존연구소는 12월 2일 경주 시험장에서 원형 훼손 없이 이동과 입불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양중(揚重) 시험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미래본부도 함께했다.

시험에서는 약 110톤 규모의 실대형 모형을 유압 장치를 통해 약 30cm 들어 올리는 데 성공하며 기술적 검증 과정을 밟았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를 종합해 2026년 1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 사면 등 종단 화합 도모

조계종은 올해 조직개편과 사면·경감·복권 절차 시행을 통해 종단 운영 전반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종단 화합과 연대에 힘썼다.

4월에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기존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삼원 체제를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했다. 기능이 분산돼 왔던 조직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수불·선각 스님 등을 포함한 징계자 10명에 대한 사면·경감·복권도 이뤄졌다. 조계종은 10월 '화합승가'를 위한 종정 교시에 따라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종무회의, 중앙종회 의결을 거치고 종정스님의 재가를 받아 12월 22일부터 시행됐다.

활발한 의견 개진…달라진 중앙종회

올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서 치열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며 변화된 흐름을 드러냈다. 정법회와 선우회 등 새로운 종책모임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사안에 따라 의견 차이로 논의가 과열되기도 했지만, 참회와 조정을 거쳐 현안을 정리해 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11월 5일 개원한 제236회 정기회는 15일 회기 중 3일만 개회했고,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2차례 유회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격론 끝에 2026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1054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개정안은 단 한 표차로 부결돼 책임 있는 표결과 신뢰를 둘러싼 과제를 남겼다.

중앙종회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해외연수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겼다. 내년 제18대 중앙종회 마지막 임기는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종단 중흥 전기 만든 태고종

불교계 주요 종단들도 바쁜 한 해를 보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올 한 해 종단 중흥의 전기를 만들었다. 이는 11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를 통해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설행과 7개국 스님들이 칠증사로 동참한 이날 법석에는 1만여 명의 태고종도가 참석해 변화된 종단 위상을 보여 줬다.

또한 취임 2년을 맞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 주요 종책사업들의 자문을 위한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들을 대거 위촉하고 종단 외연 확장과 인프라 구축에 매진했다. 영남 산불과 호우 등 재해 극복을 위한 자비행과 종교편향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10월 24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AI시대 전법·포교를 선도할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AI시대에 변화를 알아차리는 지혜의 눈[慧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 6개월만…조계종 청사 업무동 입주

12월 15일, 입주 기도 거행

올 연말까지 단계적 정상화

조계종 총무원 청사가 화재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복구 공사의 일부를 마무리하고 업무동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해 종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입주 기도식를 거행하고 본격적인 업무 정상화에 나섰다.〈사진〉 이 자리에는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 150여 명이 함께해 원활한 종무 운영과 종단 발전을 발원했다.

참석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우리의 역량이 곧 교단 발전의 근간임을 엄중하게 새기고 서로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탁마하겠다"며 "인연 있는 존재들과 인연을 맺어야 할 생명들의 바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주 기도를 거쳐 총무부와 기획실, 포교부 등 2·3층에 위치한 부서들은 우선 입주해 업무 공간 정비에 나섰다. 다만 일부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 사무실 내부 정리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상적인 종무 운영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층과 4층 총무원장 집무실,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등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지점이었던 국제회의장 등은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내영 기자

불교광장 회장 경우 스님 "연대·협력 강화"

12월 14일, 하림각서 '송년의 밤'

경우 스님 "종단 안정·화합 최선"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신임 회장 경우 스님의 취임을 맞아 그간 지향해 온 종책 담론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회원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화엄 1·2·3회와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된 불교광장(회장 경우 스님, 선운사 주지)은 12월 14일 서울 하림각에서 회장 취임 축하연을 겸한 '불기2569(2025)년 불교광장 송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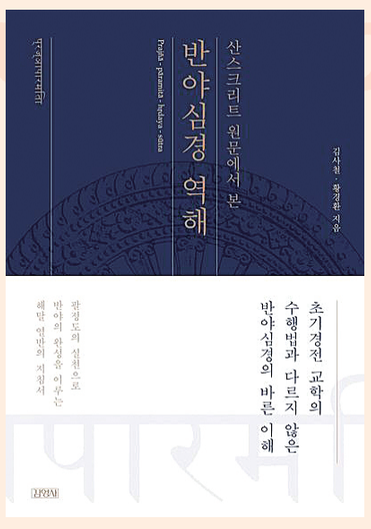
을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불교광장 회장 경우 스님을 비롯한 소속 회원 스님 53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경우 스님은 "'종단의 소통과 안정, 화합과 발전'이라는 지향은 반드시 지켜 내야 할 초심의 가치다. 잠시 흐트러졌던 본분사를 돌이켜, 가고자 했던 정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우 스님은 불교광장 종책연구기금 2000만원과 종회의원 해외연수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경우 스님은) 현직 교구장이자 다선 교구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광장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불교광장이 경우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이번에 김영사에서 1판 5쇄로 출판(2025.11.26)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저자 김사철, 황경환)는 서기 649년에 중국의 현장 스님께서 자국의 언어인 한문 260자로 번역한 이후 1300여년 넘게 우리나라에 전승 되어온 내용을, 17자를 빼고 11자를 추가 삽입한 254자로 수정 보완하여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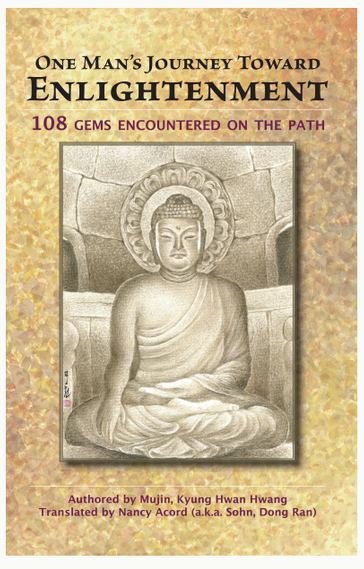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수정보완판에 대하여(14쪽~19쪽)]에서 현장 스님 번역의 오류를 지적한 부분, 원문에 없는 내용이 첨가된 부분은 삭제, 원문에 있음에도 번역에서 결락 된 부분은 다시 번역을 추가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번 5쇄로 출판된 본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를 접하는 불교학자나 불자들께서는 그 동안 반야심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나 또는 소설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도 함께 해 본다.

저자 無塵 황경환

김사철·황경환 지음 | 김영사 | 280쪽 | 15,800원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

근본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핵심 대의에서부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발행,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전자책, 오디오북 발매중!

· 사)21세기불교포럼 경주시 알천북로 345 | 사무국장: 최진홍 010-9210-2959, 회계과장: 임정은 010-8562-7312